

아라



언니

유튜브 추천에 비트코인 영상만 떠

다들 오른대 ㅠ

주아



그게 알고리즘 함정이야

비트코인 검색하면 오른다는 영상만 노출

비관론은 잘 안 떠

강사 표현으로는 '당신은 비트코인 소유자인가요,
팬클럽인가요?'

아라



ㅋㅋㅋ 진짜 그래



주아

본 회차는 4종 인지 편향 닦아내는 방법이야

투자는 너울·파도·물보라 3 영역으로 나뉘어

너울 — 10년 장기 흐름 (인구·부채·패권)

파도 — 6개월~5년 매수·매도 타이밍

물보라 — 단기 노이즈 + 인지 편향 (멘탈)

오늘은 물보라 닦아내기

레이 달리오조차 '내가 사면 항상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한탄

정확한 꼭짓점·바닥 잡는 사람 없어

물보라를 닦아내는 훈련이 필요

아라



물보라 4 종류라 했지?



주아

응

첫째 — 도파민 중독

한국 단타 성공률

0.1~0.5%

한국에서 단타로 성공할 소질을 가진 사람 전체 투자자의 0.1~0.5% 미만



주아

버블 붕괴기 변동성에 익숙해진 뇌가 도파민에 중독돼

나스닥 일일 상승률 1~4위가 다 대폭락장에서 나왔어

10% 등락에 익숙해지면 진짜 상승장(하루 1~2%)을 못 기다려

단타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

수익은 3% 짧게 챙기지만 손절 놓치면 한 번에 50% 손실

한국 단타 성공할 사람 0.1~0.5%야

버핏·드러켄밀러도 기본 단위 1~2년

아라



둘째는?



주아

손실 회피 편향

손실 회피 비대칭

2.5배

100만원 손실의 고통이 100만원 수익의 기쁨보다 2.5배 큼 (심리학 실험)



주아

100만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잃었을 때 고통이 2.5배 커

그래서 10% 하락에도 원금 다 잃은 듯 받아들임

20% 하락은 나스닥에서 4년에 한 번 흔한 일인데

공포에 바닥에서 손절, 본전 생각에 꼭대기에서 재진입

이 패턴 몇 번 반복하면 자산이 녹아내려

아라



셋째 확증 편향은?



주아

주식 매수하는 순간 뇌가 객관성 잃어

호재 — 역시 내 생각 맞아! (과대평가)

악재 — 일시적이야, 세력 장난 (무시)

기관도 마찬가지로 — 하우스 뷰가 자기 보유 정당화

유튜브 알고리즘이 더 심화시켜

비트코인 검색 → 오른다는 영상만 → 무한 긍정 회로

학계 연구도 같아 — WSB(레딧 wallstreetbets) 어텐션
↑ → 보유 기간 수익률 유의 하락

핀플루언서 트윗의 56%가 나쁜 결과로 이끄는 조언이라는
분석도 있어

 1

아라



넛째는?



주아

최신 편향 — 백미러 운전

어제 올랐으니 오늘도 오를 거라 생각

최근 기억만 미래 예측 근거로 삼아

REIT 사례 — 2021년 +46%로 S&P 500 부문 중 최고였는데

2022년에는 -26%로 정반대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다 다쳤어

자동차 운전에서 백미러만 보면 100% 사고 — 커브길 나오면 끝

투자는 미래를 사는 거지 과거 차트를 사는 게 아니야

아라



헤드라인은 어때?



주아

뉴스는 어텐션을 파는 상품

폭락장 — '검은 월요일, 공포 확산'

폭등장 —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10만 전자'

둘 다 클릭 유도해서 투매·추격 매수 자극

한국 언론·일부 전문가는 항상 대세 따라가

뉴스 많이 볼수록 뇌가 감정적이 돼서 AI와의 싸움에서 불리해

단발성 헤드라인은 무시

AI 트렌드나 시장 구조 심층 분석한 인사이트 있는 기사를 봐

아라



전문가 함정 사례는?



주아

역사상 최악의 배신 — 2000년 닷컴 헨리 블로젯

당시 나스닥 78% 폭락 (5분의 1 토막)

코스피로 환산하면 6,300 → 1,300이야

블로젯 사례 - SEC 2003

\$4M

메릴린치 인터넷 분석 헤드 / 평생 증권업 BAN + \$4M 벌금. Global Analyst Research Settlement \$1.4B



주아

방송에서는 'Strong Buy' 추천

근데 동료 이메일에는 'Piece of Shit. 근데 개미들이 사주니까 오르네 ㅋㅋ'

개미들은 그 말 듣고 전 재산 날렸어

2003년 SEC가 평생 증권업 BAN + \$4M 벌금

Global Analyst Research Settlement \$1.4B로 IB 10개 합의

리서치-IB 부서 물리·기능 분리 강제됐어

근데 한국은 그 정도 구조 개혁 없어

아라



외국인 리포트는?



주아

초대형 은행들이 매번 같은 수법 써

1. 주가 폭락 후 상승 리포트 발행

2. 개인 매수 유도

3. 자신들은 물량 정리

외국인이 20~30조 팔다 조금 매수하면 '돌아왔다'
대서특필

골드만삭스 목표치 상향 → 개인 진입 → 외국인 대량 매도

1990년대부터 IMF·GFC 직전 동일 패턴 반복

수법이 통하는 이유 — 증시 참여자가 끊임없이 바뀌어서

아라



한국 증권사는 왜 다 오른다 그래?



주아

구조적 이유 3가지

① 가장 큰 고객 = 기업 (IPO·증자 수수료) — 기업이 자기 주가 부양 요청하면 거절 불가

② 수수료의 노예 — 주가 떨어지면 매매 감소 → 증권사 수입 감소

③ 낙관론 편향 — '떨어집시다 다 파세요'라 하면 누가 펀드 가입?

미국은 애널리스트 성적표 사이트가 있어 적중률 노력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윗선·기업 고객 눈치 더 봐

아라



그럼 어떻게 알아봐?



주아

노이즈 거르는 3 핵심 질문이야

Q1. 이 뉴스가 기업의 이익(EPS)을 변화시키는가?

'로보틱스 진출 선언'은 X, '대규모 수주 계약'은 O

Q2. 이 뉴스가 1년 뒤에도 중요할까?

'오늘 나스닥 2% 하락' — 1년 뒤 무의미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 영구적 영향

Q3. 공포인가 팩트인가?

'2차 대공황 신호탄' vs '미국 실업률 4.5%'

숫자만 따라가야 정답 찾아

아라



리딩방 정보는?



주아

거의 진짜 아냐

본인한테 전달된 시점에 이미 잘못됐거나 과장됐을 가능성 커

아라



결론?



주아

피터 린치 — 백미러 X / 앞유리 O

기관이 차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개인 유인하기도 해

골든크로스로 매수하게 하고 데드크로스 만들어서 자기들이 매수

차트 분석은 시장 주체가 AI로 바뀌면서 의미 ↓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까?

AI 혁명이 가져올 성장성?

새 경쟁자 출현 가능성?

미래 시나리오에 집중해

 1

■ 노이즈 거르는 3 핵심 질문 (강사 명시)

01 Q1. EPS를 변화시키는가
— '진출 선언' X / '수주 계약' O

02 Q2. 1년 뒤에도 중요한가
— '오늘 -2%' X / 'AI 전력 부족' O

03 Q3. 공포인가 팩트인가
— 숫자만 따라가야 정답



주아

워런 버핏 — '투자는 IQ가 아니라 기질이다'

3 가지 기질이 필요해

남들이 미쳐 날뛰는 때 차분해지는 냉정함

비관론 팽배할 때 용기 있게 매수하는 역발상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시드머니 잘 건사하는 게 핵심

완벽한 파도는 없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보드(시드머니) 있어야 다시 일어나

아라



유튜브 알고리즘 정리해야겠다 ㅋㅋ



주아

응 잘했어

다음 주 Part 3-6강 — 위기를 보는 눈

구조 + 멘탈 통합 결론편이야

아라



기대돼!